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빌딩 3층
Flr. 3th, CISJD building #35, Chungjeongro 2 ga, Seodaemun Gu, Seoul, Korea.
Tel. (82-2)365-4016, 392-5252 Fax. (82-2)365-4017
Internet :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 mss@peacenet.or.kr

문서번호 : 정대협 제 99 - 13호

1999년 1월 27일

수 신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위원 귀하

제 목 : 제3차 한국위원회 모임의 건

1.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한국위원회가 첫모임을 가진 이래, 위원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거의 매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습니다.

2. 2차 한국위원회 모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시현 교수님께서 러셀법정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고찰해주셨습니다.
- 2) 정진성 교수님께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바우넷 제펜 국제회의 결과와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작업들을 중심으로 보고해주셨습니다.
- 3) 각 분과마다 조직을 했고, 홍보분과와 기획재정분과를 통합했습니다.
- * 법률분과: 고문 지정일 교수(한양대), 위원장 김명기 교수(명지대), 간사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 * 진상규명분과: 위원장 강정숙(정신대연구소)
- * 홍보기획분과: 위원장 김윤옥(정대협 공동대표)

4) 추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박배근(일본 큐우슈우대), 하종문(한신대), 이철원(마음길), 안상님(새정치국민회의), 태평양 유족회, 나눔의 집, 한원상(YTN), 안혜룡(비디오작가), 보임(다큐멘터리제작팀), 강혜숙(청주대)

5) 전체모임에서 ㉠ 2000년 법정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적어도 2000년 법정을 구성하는 원칙을 첫째, 일본국가에게 강한 압력을 넣는데 초점을 두는 것, 둘째, 여성의 시각에서 국제법을 바라보는 것, 셋째 현재적 관점에서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2월 18일에 있을 국제실행위원회에 한국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2000년 법정의 성격과 이름, 구성을 위한 실무소위원회(홍성필 교수, 조시현 교수, 김창록 교수 3인)를 구성하여 전체의 틀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 각 피해국들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방안도 이야기되었습니다. ㉢ 그동안 통상 사용해온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이름이 명확한 문제의식을 전달하지 못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더 좋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당분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라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6) 2000년 법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한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위원들의 공통된 교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다음 모임은 2월 11일 오후 4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 "2000년법정의 성격과 구성" / 법률분과 실무소위
- 각 분과별 모임 "각 분과의 2년간 구체적인 향후 사업토의"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위원장 윤정옥